

김기림 소설의 함북 방언

정성훈*

「철도연선」을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김기림의 소설에 방언이 나타나는 방식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왜 김기림이 표준어로 문학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김기림은 고향인 함북 지역을 배경으로 한 세 편의 소설에서 학성 지역의 방언을 풍부하고 일관성 있게 구사하였다. 그런데 이때 소설에서의 방언 사용은 단순히 사실성을 확보하거나 미학성을 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철도연선」에 나타난 방언 간의 위계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고향’이 소외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고향 방언은 ‘과거의 것’으로 위치지어지며, 설령 함경도가 ‘군셈’과 ‘건강함’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공세하에 밀려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김기림은 소설에서 함북 방언을 풍부하게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문명을 노래하는 모더니즘 시에서는 방언을 배제하게 된다. 이는 방언을 문학어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순전히 미학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근대 문명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김기림, 방언, 표준어, 「철도연선」, 함북 방언, 고향

1. 김기림의 소설과 ‘아름답지 못한’ 방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방언은 말 그대로 ‘지방의 말’, 즉 ‘지역어’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하에서는 ‘서울말’도 어디까지나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간에는 우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지역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¹ 그러나 식민지기에 원활한 통치를 위한 총독부의 표준어 정책과, 조선어학회의 주도로 표준어를 사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방언은 이제 새롭게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서의 함의를 띠게 된다. 근대문학의 성립에 따라 문학에서 방언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 문제에 대해 작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삼천리』에 4회에 걸쳐 연재된 「향토문화를 말하는 좌담회」(이하 ‘좌담회’)이다.² 이 좌담회에서 문인들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꺼내면서 그와 함께 ‘고향 방언의 언어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작품 속에 집어넣으려고 어떤 용력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편석촌 김기림(1908~?)은 ‘표준어’과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보이는 인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관북산천은 혹은 유려할지 몰라도 저의 고향은 그렇지 못합니다. 초라한 적은 별판과 앞을 가리는 마천령 연산이 늘 막막하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 지방 말은 역시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무도 기억할 이 없는 졸작 『어떤 인생』, 『번영기』, 『철도연선』 속의 대화에는 지방말을 그대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죽여 버렸을 걸요.

이 북쪽에서는 작가나 시인의 작품의 특질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공통되지는 않아도 대체로는 좀 부툼부치가 텅텅하고 붓이 거칠지나 않을까—— 그런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는 김광섭 씨의 시 같

1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 pp. 12-29.

2 「郷土文化를 말하는 座談會」는 『삼천리』에서 1940년 5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관서 지방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1회(1940. 5.)를 시작으로 기호 지방(2회, 1940. 6.), 영남·영동 지방(3회, 1940. 7.), 관북·만주 지방(4회, 1940. 9.)이 다루어졌으며, 도합 31명의 문인이 참여하였다.

은 것은 북쪽 출신 같지 않게 섬세하고 정려(精麗)하니까 일률로는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요. 서해, 설야, 파인…… 대체로는 모두 앞에서 말한 의미의 북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 인용문에서의 밑줄은 인용자)

관북 출신 작가의 작품에 대한 “대체로는 좀 부툼부치가 텁텁하고 붓이 거칠지나 않을까” 하는 평을 의식한 듯, 실제로 김기림은 주로 표준어로 시를 창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림 시의 방언 의식을 고찰한 강은진은 관북 출신 작가들이 “당대의 미묘한 문학어 표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성을 탈각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³ 그러나 이 표준어 강박의 한편에는 그가 일찍이 방언을 살려 소설을 쓴 적이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기도 하다. 김기림이 창작한 소설은 단 세 편, 즉 그가 언급한 「어떤 인생」(『신동아』, 1934. 2.), 「번영기」(『조선일보』, 1935. 11. 2.~11. 13.), 「철도연선」(『조광』, 1935. 12.~1936. 2.)이다. 그런데 이 세 편이 공통적으로 함경도 지방을 배경으로 삼으며 동북 방언을 살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언에 대한 김기림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⁴

위 김기림의 발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방언의 ‘아름답지 못함’, 즉 방언에 대한 미학적 판단이 고향이라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한 판단과 결부되어 논해진다는 점이다. 고향의 “초라한 적은 별판과 앞을 가리는 마천령 연산”은 그에게 막막함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며, 지방말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 또한 ‘역시’라는 부사를 통해 연결된다. 이러한 인

3 강은진(2016), 「식민지기 관북 출신 시인들의 방언 의식과 시적 언어의 향방」,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p. 89.

4 다만, 희곡의 경우에는 방언을 살려서 창작한 모습을 찾기 어렵다. 『김기림 전집』 5(심설당, 1988)에 따르면 김기림의 희곡은 총 5편인데, 그중에서 「바닷가의 하룻밤」만이 함경도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며 그나마도 작중에서 인물들의 대사는 표준어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상연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식이 김기림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데,⁵ 이는 방언(들)과 표준어를 미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발전의 정도에 따른 지역 간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시나 소설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판단이 순전히 미학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문학과 방언의 관계를 논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우선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적 이분법을 전제한 뒤, ‘시=미학적성’, ‘소설=사실성’의 틀에서 방언이 갖는 효과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 시에서의 방언 사용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인의 노력으로 해석되는 반면, 소설에서의 방언 사용은 ‘사실성 강화’ 내지는 ‘토속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만 효과가 한정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⁶ 그러나 좌담회에서 각각의 작가들이 방언에 대

5 ‘표준어-방언’의 문제가 서울과 지방 간의 헤게모니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음은 좌담회의 다른 글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주요한이 “‘평양’은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지는 곳”(1회), 채만식이 “매엔 윤치 없는 ‘임피’ 땅, 산도 보잘것없고 물도 보잘것없고 심히 평범한 곳”(2회)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방언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미학적 판단 아래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서울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좌담회에 참석한 모든 문인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가령 같은 좌담회에서도 현경준은 “우리 지방 방언은 (….) 액센트가 강하고 어조가 명료치 못해 작품에 넣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관북 사투리는 한글로서 표현 못할 어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관북 방언이라는 ‘말’과 한글이라는 ‘글’의 불일치를 문제 삼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용악은 “말에 따라선 시골서 쓰여지는 말이 훨씬 맞는 것이 있겠지만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말의 효능이 그 말에 젖은 사람들에게만 한하는 수가 많지 않”냐고 하며, 표준어파를 자칭하면서도 특별히 지역 간의 우열 관계를 문제 삼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김기림이 고향의 ‘초라함’과 방언의 ‘아름답지 못함’을 연결 지은 것은 방언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6 가령 김홍수는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에서 방언의 ‘언어미학적 기능’과 ‘현실모사적 기능’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데 기실 여기서의 ‘언어미학적 기능’이란 리얼리즘에 근거를 둔 현실 모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해된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 ‘방언’은 오로지 적확한 현실 모사를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뿐, 방언이 표준어와 동위(同位)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홍수(2001),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문학과 방언』, 역락.

해 보여 준 상이한 인식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분법만으로 문학 텍스트에서 방언이 갖는 효과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장르에 따른 방언의 효과를 도식적으로 전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작가가 방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⁷ 또한 특정 언어에 대한 미학적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물을 때, 그것이 반드시 해당 지역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김기림의 방언 사용을 논함에 있어서도, 좁게는 김기림 본인이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넓게는 그가 어떤 관점에 의거하여 중앙과 주변(로컬)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김기림의 문학 작품에서 방언이 활용된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관북 출신 시인들의 방언 의식을 살펴본 강은진의 연구⁸와 김기림 시에서 언어의 혼재 양상을 분석한 이근화의 연구⁹가 대표적이다. 강은진은 “외래어와 신조어를 통해 신문명의 총아로서의 언어적 모더니티를 구현하고자 했던” 김기림에게 있어 과거의 언어인 ‘방언’이 극복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¹⁰ 다만 ‘시인’으로서의 김기림에 주목했기 때문에, 한설야와 김기림의 방언관을 대조하며 그것을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과 미학적으로 정제되어야 하는 시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데,¹¹ 앞서도 언급하였듯 이러한 구분은 두 작가가 지닌

7 이러한 접근이 시와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무화하거나 김기림의 문학 세계에서 시와 소설의 위상을 동등한 것으로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는 ‘미학적인 것으로서의 시’나 ‘시인으로서의 김기림’과 같은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우선 개별 작가들이 방언과 표준어의 사용에 대해 가지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문학에서 방언 선택의 원리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할 때 각 작가(이 경우에는 김기림)가 상정하는 문학 장르와 언어 간의 관계 또한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8 강은진(2016).

9 이근화(2011), 「김기림 시어의 혼재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3, 한국근대문학회.

10 강은진(2016), p. 95.

11 강은진(2016), p. 91.

인식의 복잡성을 ‘소설(사실성)과 시(미학적)’의 차이라는 장르 문제로 간단하게 환원해 버릴 우려가 있다.

한편 이근화는 김기림 시에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언어들(표준어·방언, 외래어·고유어, 관념어·구체어)이 혼재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김기림이 지니고 있었던 근대적 주체의 자기 이해 방식을 살펴본다. 여기서 김기림의 시에 나타난 함북 방언 어휘를 소개하며 그가 방언에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본 이근화의 서술¹²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방언에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김기림이 ‘시어로서의’ 방언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인은 시를 쓰면서 어떠한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선택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첫째로 그의 소설에 나타난 방언의 양상을 확인한 뒤, 둘째로 작품 속에서 특기할 만한 방언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대사와 지문에 나타난 방언을 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김기림이 함경도 방언을 잘 알고 ‘의식하여’ 그것을 소설에 의도적으로 활용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김기림의 소설 중 「철도연선」에 나타난 방언 의식에 주목하여 김기림이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기림이 ‘표준어’파이기를 선택했다고 할 때 그러한 선택을 낳은 인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2. 소설에 나타난 함경도 방언의 양상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김기림은 1908년 함경북도 학성군 학중면 임명

12 이근화(2011), p. 37.

동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보통학교(4년제)까지 마친 뒤 백부의 권유에 따라 한학자에게 개인적으로 한문을 수학하였고, 1920년 성진의 농학교를 약 1년간 다니다가 이듬해 서울에 소재한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다. 보성고보를 중퇴한 김기림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소재한 메이쿄중학과 니혼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1925~1929), 귀국하고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다가 다시금 도일하여 일본 센다이의 도호쿠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다(1936~1939). 이처럼 서울, 도쿄, 센다이 등 여러 지역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1923년에는 수학여행에서 얻은 병으로 1년 간 고향에서 요양을 하였고 1931년에는 조선일보사를 잠시 휴직하여 고향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등 유년기 이후에도 이따금씩 고향에서 지내고는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작품 창작을 시작한 1930년대에도 여전히 함성 지역의 방언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동북 방언권은 크게 육진 방언 지구, 함경도 북부 방언 지구, 함경도 남부 방언 지구로 구획될 수 있는데,¹³ 김기림의 고향인 함성군은 함경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함경도 남부 방언으로 구획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김기림 소설에 나타나는 방언을 특징적인 것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ㄱ) 『글세 어찌겠음메 가추지비 나랏빚이사 지구 백에나는 범이 있음메』

(「어떤 인생」, 186)

13 곽충구(2001), 「동북 방언」, 『방언학 사전』(방언연구회 편), 태학사, p. 106.

14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언의 경우 연재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방언이 사용되지 않은 지문은 현대어로 다듬어 표기하였다. 또한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잡지 연재본 인용 시에는 괄호 안에 작품명과 인용 면수를, 신문 연재본 인용 시에는 작품명과 연재일을 표기했다.

· 「어떤 인생」, 『신동아』, 1934. 2.

· 「번영기」, 『조선일보』, 1935. 11. 2.~11. 13.

· 「철도연선」 (1)~(3), 『조광』 2~4, 1935. 12.~1936. 2.

(ㄴ) 『그런데에 우리집이 모두 멧쟁이요?』 (『변영기』(2), 1935. 11. 3.)

우선 음운 면에서 살펴보면, 위 사례들에서는 동북 방언의 모음 체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곽충구에 따르면 동북 방언에서 j계 상향 이중 모음 /ㅟ, ㅟ, ㅟ, ㅟ, ㅟ, ㅟ/는 자음이 선행하지 않아야 실현될 수 있으며, 특히 순수 고유어에서 ‘ㅟ, ㅟ, ㅟ’ 등의 변자음 뒤에서는 ‘ㅟ>ㅟ’와 같은 단모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¹⁵ (ㄱ)의 ‘백에나는(배겨나는)’, (ㄴ)의 ‘멧쟁(멧쟁)’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ㄱ) 『칠길이랑이?』 (『철도연선』(1), 393)

(ㄴ) 『느렁챙이 느렁챙이 해두 성을 냉이 무섭소』 (『철도연선』(1), 403)

(ㄷ) 『그 도적놈같은 십장놈은 어찌 앙이됐는지 구경도 앙이나오구 방에서
풀종지 같은 눈으 껌버억 껌버억 하구 이깟지비』 (『철도연선』(1), 403)

(ㄹ) 『물에 밀려갔을 적에는 인젠 버리게 똥승이 세금을 업시해달라구 신고
만 해노쿠 글세 이십년을 내버려 두엇스니……』 (『변영기』(6), 1935. 11.
8.)

(ㅁ) 『그거 쟁이챙이타. 그래 야사라는 건 뭔가 난포란 건 뭐구?』 (『철도연
선』(1), 394)

(ㅂ) 『야 그거 실루 잘 똤다. 하루에 팔십전이문 적쟁이타』 (『철도연선』(1),
394)

(ㅅ) 『야 일즉안이 자거라. 곤하쟁이냐?』 (『철도연선』(1), 400)

(ㅇ) 『그럼 우리두 내일 일 모레 일 날마다 걱정하쟁이쿠 남처름 맘 노쿠
살아보쟁이갓소. 부자간은 월급으 밧구 나는 삭바누질이랑 삭빨래랑
하구……』 (『변영기』(8), 1935. 11. 10.)

(ㅈ) 『그러쟁이큰 앙이되갓소?』 (『변영기』(10), 1935. 11. 13.)

15 곽충구(2001), pp. 100-101.

위의 사례에서는 동북 방언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에 의하면 경성, 명천, 길주, 학성 등의 함복 남부 지역에서는 어중에서 ‘니’가 ‘이’로 발음되며, 이때 ‘이’의 비음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¹⁶ (ㄱ)~(ㄷ)의 ‘이랑이(이라니)’, ‘냉이(내니)’, ‘앙이(아니)’, ‘똥승이(똥승니)’ 등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ㄹ)~(ㅅ)에서는 공통적으로 표준어의 ‘-지 않-’에 해당하는 부분이 ‘-쟁이ㅎ-’로 발음되고 있다. 가령 (ㄹ)의 ‘괘이챙이타’는 ‘괘찮다’의 의미로 쓰인 것인데, 『함복방언사전』에 따르면 ‘괘찮다’의 학성 방언은 ‘괘이챙이타’로 되어 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괘이챙이타’라고 표기된 것은, 앞의 사례에서 김기림이 비음 ‘ㅇ’을 살려 표기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표준어 ‘-지 않-’이 ‘-쟁이ㅎ-’가 되는 현상은 ‘적쟁이타(적지 않다)’, ‘곤하쟁이냐(곤하지 않냐)’, ‘걱정하쟁이쿠(걱정하지 않고)’, ‘살아보쟁이겠오(살아보지 않겠소)’, ‘그러쟁이쿰(그렇지 않고는)’ 등 김기림의 소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 (ㄱ) 『그렇기야 하지비. 이전에사 서울루 가자문 어떻던지 말바리르 타구 장장 한달은 가따이까. ……이런 산골에 차길은 농느랑이 벼라별 일이 다 있었지비』 (『철도연선』(1), 392)
- (ㄴ) 『불상한 일이지 한 다투 거저 고생만 하다가——』 (『철도연선』(1), 393)
- (ㄷ) 『내 새끼사 그저 애비를 달마서 총명하지비』 『흥 그아 외편은 달마서 그러치 네 아버를 달문 줄 암메?』 『그래두 애비르 달맛지비 그까짓 외편이 다 무시게냐? 그래 월급은 얼마라디?』 (『변영기』(3), 1935. 11. 5.)
- (ㄷ) 『아 이전에사 아주 드문 산골이지비』 (『철도연선』(1), 392)

16 김태균(1986), 『함복방언사전』, 경기대학교출판국, pp. 20-21. “부사 ‘아니’는 ‘아이’라 하고, ‘아니다’는 ‘아이다’로 소리 난다. ‘이’의 비음이 강하여서 ‘아이’는 ‘앙이’로 들리고 ‘아이다’는 ‘앙이다’로도 들린다. ‘아니·아니다’뿐 아니라 체언·용언의 활용어미에서도 ‘니’는 ‘이’로 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김태균(1986), p. 74.

- (㉓) 『에 별일이 다 있었답메』 (『철도연선』(1), 392)
- (㉔) 『아가 오늘 명택이너 집에 가서 이밥은 주는지 먹구서는 조밥은 양이 먹습메』 (『어떤 인생』, 184)
- (㉕) 『이늬아르 아매 핵교서 폐사하겠소 월새금만 탕탕 빛이 돼 자라나가 구 살기두 구차한데 어찌겠음메』 (『어떤 인생』, 186)
- (㉖) 『어찌라구 이럼메?』 (『철도연선』(1), 402)
- (㉗) 『구미에서 오랍데』 (『철도연선』(2), 293)
- (㉘) 『저—기 그러구 떠러진 월새금은 보름날까지 가져오랍데 그러채이문 집행한답데』 (『어떤 인생』, 185)
- (㉙) 『늬귀 그럽데?』 『구장 사촌이 얘기하는데 명친까지 타본다등가』 『늬귀 늬귀 왔답데?』 (『철도연선』(3), 128)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조사와 어미에서 동북 방언을 살펴볼 수 있다. 가령 (㉑)와 (㉒)에서는 동북 방언의 목적격 조사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는 ‘-르’,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는 ‘-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¹⁸ 이는 (㉑)의 ‘외편으(외편을)’, ‘에비르(아비를)’나 (㉒)의 ‘이밥은(쌀밥을)’ 등과 같이 모든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㉑)과 (㉒)의 ‘사’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야’의 방언형이다.¹⁹

어미 또한 주목할 만한데, 우선 (㉑)과 (㉒), (㉓)에서는 ‘-지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비’는 김기림의 소설에서 무척 활발히 사용되는 어미 중 하나로, 함남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대의 서술, 의문, 청유형 어미이다. 학성이 함경도 남부 방언 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지비’가 활발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⁰ 다음으로 (㉓)~(㉖)에서는 ‘-(으)ㅁ메/습메’가 나타나는데, 이

18 박충구(2001), p. 103.

19 김태균(1986), p. 357.

20 박충구(2001), p. 104.

는 평대의 서술형 어미이다.²¹ 다만 (ㅇ)의 경우 의문형이지만 서술형처럼 ‘-ㅁ메’가 쓰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ㅅ)~(ㅋ)에서는 ‘-(으)ㅁ데’가 나타나는데, ‘-읍/습데’가 함남북에서 두루 쓰인 보고범 어미임을 고려하면²² 이 또한 동일한 쓰임을 지닌 어미였으리라 생각된다.

(ㄱ) 『남의 얘기는 들어두 양이보구 뒷마을 남수네는 이번에 글세 저목장 바람에 물역에 아모쟁산에두 못쓰든 솔바트 파라서 부재땀담메』 (『번영기』(2), 1935. 11. 3.)

한편 동북 방언의 통사적 특징 중 하나로 부정부사의 특이한 위치를 들 수 있는데, 곽충구는 ‘술기도 넘어 못 가오(수레도 못 넘어가오)’, ‘먹어 아이 보았소(먹어 보지 않았소)’ 등의 사례를 들며 부정부사가 보조용언 바로 앞에 온다는 점을 지적한다.²³ (ㄱ)의 ‘들어두 양이보구(들어보지도 않고)’도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휘를 살펴보자. 아래 예시들은 김태균의 『함북방언사전』 또는 심재기의 『우리말 방언사전』에서 학성 또는 성진 지역의 방언으로 분류된 어휘들이다. 『함북방언사전』에서는 학성과 성진의 어휘를 구분하고 있으나 김기림이 성진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다는 점, 또 성진이 사실상 학성에 속한 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 이밥(쌀밥): 『아가 오늘 명택이네 집에 가서 이밥 주는지 먹구서는 조밥은 양이 먹습메』 (『어떤 인생』, 184)
- 재우(속히, 쉬어, 어서): 『야 이연아 제 아비 부르는데 대답두 양이하고—
— 재우 디리거러라 — 이년 오늘은 죽어봐라』 (『어떤 인생』, 184)

21 곽충구(2001), p. 103.

22 곽충구(2001), p. 104.

23 곽충구(2001), p. 104.

- 날래(속히, 쉬이, 어서): 『날래 누어라』 (『어떤 인생』, 185)
- 모리다(새김질하다): 나무 그늘에 피하야 가로 잡바져서 모리를 모리고 있는 것이 그의 하나뿐인 낙인가 보다. (『어떤 인생』, 186)
- 물역(갯가): 『남의 얘기는 들어두 양이보구 뒷마을 남수네는 이번에 글세 저목장 바람에 물역에 아모쟁산에두 못쓰든 솔바트 파라서 부재땃담메』 (『변영기』(2), 1935. 11. 3.)
- 다문토리(큰 잔으로 소주를 마시는 일, 대퓏술): 『아즈머니 다문토리 한잔식 주』 (『변영기』(6), 1935. 11. 8.)
- 무시게(무엇이): 『이연아 무시게 어찌구 어째?』 (『철도연선』(1), 402)
- 좃사리(꼬락서니): 『되지 못하긴 뉘가 되지 못해? 흥 좃사리 값으 함메』 (『철도연선』(1), 402)
- 자란이²⁴(어른): 『자란이들뿐이 돼서 어디 가겠니?』 / 『일없다 자란이들이 못보는 데 가 놀지』 (『철도연선』(2), 295)
- 뉘귀(누가): 『뉘귀 그럼데?』 『구장 사촌이 얘기하는데 명천까지 타본다둥가』 『뉘귀뉘귀 왔답데?』 (『철도연선』(3), 128)

아래 사례와 같이 학생의 어휘는 아니나 인접 지역의 방언 어휘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아래의 ‘갠’은 경성 또는 길주 방언으로, 학생에서는 ‘개울’이라고 한다.²⁵ 그러나 길주가 학생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기림이 ‘갠’이라는 어휘를 익숙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 갠(개울): 『갠까지 다려다쥬』 (『철도연선』(2), 301)

한편, 아래 사례들은 방언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표제어와는 그 형태가

24 ‘자라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곽충구(2001), p. 104].

25 김태균(1986), p. 47.

다소 다르지만 표기법의 차이를 감안하여 함남 지역의 방언 어휘로 판단할 수 있는 어휘들이다.

- 남기(나무)²⁶: 『잘됐다 잔득 글 이르기르 시러하드이 내일부터는 남기나 해라』(『어떤 인생』, 185)
- 부랑귀(대포)²⁷: 『그래 그게 거 저 일아전쟁 때 부랑귀 소리 같구나』(『철도연선』(1), 395)

또한 인물의 대사가 아니라 지문에 방언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외래어나 외국어에 강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겹낫표(『』)와 함께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다.

- 조양(살강,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 유령의 얼굴처럼 희미하게 빛을 쏘는 『조양』 위에 늘어앉은 그릇들— 쥐조차 어디서 부스럭거리지 않는다. (『어떤 인생』, 188)
- 후치, 가락이(농기구의 한 종류)²⁸: 잠봉은 아침해가 졸려온 듯이 맥없이 흘러나는 뜨락에서 『후치』와 『가락이』를 고치고 있었다. 열어젖힌 외양간 문 안에서는 뿔이 기다란 황소의 긴 얼굴이 『후치』와 『가락이』를 내려다 보면서 『음매—口음매—口』 하고 애처로운 울음을 운다. (『어떤 인생』, 182)

26 『우리말 방언사전』에 따르면 ‘나무’를 의미하는 함경도 방언으로 ‘남기’와 ‘냉기’가 제시되어 있다[심재기(2010), 『우리말 방언사전』,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p. 87].

27 『우리말 방언사전』에서는 ‘대포’를 의미하는 함북 방언으로 ‘부랑기’가 제시되어 있다[심재기(2010), p. 127].

28 ‘후치’는 쟁기와 비슷하나 보습 끝이 무디고 술이 곧게 내려가는 농기구이다. 소 한 마리로 끌면서 쟁기로 갈아놓은 논밭에 골을 타거나, 흙이 얇은 논밭을 가는 데 쓴다. 한편 소 두 마리로 끄는 농기구는 ‘가대기’라고 하는데, 『어떤 인생』의 ‘가락이’는 이 ‘가대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김태균(1986), p. 88].

- 술기(수레), 발귀(산에서 마소가 끄는 썰매): 달그랑거리는 풍채술기와 겨울이면 『발귀』라고 부르는 썰매와 같은 것이 유일한 교통기관인 줄만 알고 있던 (『철도연선』(1), 392)

겹낫표의 사용이 모든 방언 어휘에 일관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기에 잡지의 편집 방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서로 다른 지면에서 연재된 「어떤 인생」과 「철도연선」에서 겹낫표가 둘 다 사용된 것을 보면 이는 김기림이 자의적으로 넣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어휘들의 경우 표준어로 쓰인 지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 겹낫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소설에서 방언이 단순히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즉, 인물들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로) 사용되었다면 이와 같이 겹낫표로 강조까지 하면서 ‘지문에서’ 방언 어휘를 특별히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기림은 소설에서 방언 어휘를 매우 ‘의식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방언 사용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는 인물마다 방언 사용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인생」의 경우, 함경도가 배경으로 제시된 만큼 주인공인 참봉 영감만이 방언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며 인물 대다수가 부분적이거나 함경도 방언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생이나 의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하여 주인공인 참봉 영감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은 특징적인데, 다음 대화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²⁹

29 박상천은 이 대화를 통해 참봉과 선생의 교향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나(박상천(1985), 「金起林의 小說 研究」, 『韓國學論集』 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313), 선생 또한 ‘무시게라는두’와 같은 방언을 쓰는 것을 고려하면 함경도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같은 방언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인물의 방언 사용 정도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무시게라는두 늙은 게 귀까지 먹어서』

담임선생은 이 쪽으로 향하는 참봉의 한편 귀에 향하여 호령을 부르듯이 소리쳤다.

그제야 참봉은 두 손을 마주 쥐고 비빈다. / 『그저 어찌겠음메, 늙은 게 시방은 못하겠음메』

『그래두 떠러진 월사금은 보름날까지 가주오 그러치 않으면 군에서 나와서 집행을 하오』 / 『글세 어찌겠음메 가주지비 나랏빛이사 지구 백에나는 법이 있음메』 (밑줄 친 부분이 '선생'의 대사 - 인용자) (『어떤 인생』, 186)

물론 작중에서 인물들 간 방언 사용의 정도차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거나, 온전히 표준어만을 사용하는 함경도 출신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언을 가장 활발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주인공 내지는 그들의 가족으로, 대체로 빈궁한 생활을 이어 나가는 존재들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표준어를 쓴다는 법은 없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방언 사용의 정도에 차이를 둔 것은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김기림의 인식을 살피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이처럼 김기림은 소설에서 자신이 나고 자란 함성 지역의 방언을 무척 활발히 구사하고 있으며, 어휘뿐 아니라 음운·문법적 요소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김기림은 방언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어와 함경도 방언에 대한 구별이 뚜렷했던 것인데, 이것이 형성하는 위계질서에 대해 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저물어 가는 방언

3.1. 「철도연선」에 나타난 언어들 간의 위계

선행 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 김기림이 쓴 세 편의 소설은 공통적으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희생당하는 함경도 농촌 사회의 극빈한 삶을 주제로 삼고 있다.³⁰ 작가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김기림은 근대 문명이 농촌 사회에 야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소설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문명의 침투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방언과 연결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미학적 판단은 순수하게 미학적인 차원에 놓일 수 없고, 도시와 농촌 간의 위계에 대한 인식을 근저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몰락이 필연적 귀결이라면, 표준어의 우세로 인한 방언의 몰락도 ‘필연적인’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가령 최시한은 김기림이 (설령 일제에 의한 것일지라도) 근대화는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남는 것은 근대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뿐이라고 해석하였다.³¹ 한편 홍경표는 김기림이 근대화를 긍정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작품 속에서 야기된 “윤리적인 행태의 변화”(농촌 사회에 개발의 현상이 던지는 파괴력)를 “하나의 사실로서 인지할 뿐 가치판단적 관점은 유보하고 있다”고 보았다.³² 즉, 김기림은 분명히 근대 문명이 갖는 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소설에서는 그에 희생되는 농촌 사회의 모습을 제시할 뿐 별다른 전망을 보여 주지는 않고 있다

30 홍경표(1998), 「지형적 변동과 모더니즘 정신: 편석촌 김기림의 소설」, 『어문학』 62, 한국어문학회, p. 351.

31 최시한(1988), 「김기림의 희곡과 소설에 대하여」, 『배달말』 13, 배달말학회, p. 22.

32 홍경표(1998), p. 347.

는 것이다. 물론 근래에는 김기림의 시와 문명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김기림이 근대화를 ‘숙명’이자 ‘불문율’로 여기면서도 “근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자 했음이 밝혀짐으로써³³ 김기림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는 어느 정도 수정되었다. 그렇다면 근대화에 대한 김기림의 이러한 인식은 방언의 문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함경도 지역의 철도 부설 과정에서 외지인 인부가 유입됨에 따라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 낸 소설 「철도연선」은 방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⁴

이 작품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작중 묘사³⁵로 미루어 볼 때 역시 김기림의 고향인 학성 지역을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방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외지인 인부들이 ‘남쪽으로부터’ 이 산골로 들어오면서이다. 그들이 세들어 사는 방에서는 “날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야릇한 사투리가 떠들썩거리며, 주막에서는 “모진 경상도 사투리가 튀겨져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 ‘박존이’ 영감의 아들 ‘명식’은 뒤숭숭함을 느낀다. 이윽고 명식과 그의 아들 ‘재수’는 철도를 부설하는 인부로 일자리를 얻고, 그 과정에서 재

33 김한성(2014),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12.

34 다른 두 소설, 즉 「어떤 인생」과 「변영기」에서도 인물들의 대사에서 함복 방언이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방언 자체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이나 방언들 간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특별히 찾기 어려웠기에 3장의 논의에서는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철도연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35 “이 지방에서 일백이십리나 백두산으로 더 가까이 올라간 곳에 구원회사(久原會社)가 동광을 시작한 뒤부터 그곳을 동점(銅店)이라고 불렀고 그곳과 성진 항구 사이를 탄탄한 신작로가 쭉 뻗어있”는데, “이 신작로에서도 오리를 산골짜기로 더 피해 앉은 작은 마을”이 작중 배경이 되는 곳이다(「철도연선」(1), 392-393). 일본의 구원광업주식회사가 광업권을 가지고 채광을 한 곳은 함남 갑산(甲山)에 위치한 ‘갑산동산’이다. 또한, 작중에서 부설하는 철도는 성진을 지나가는 함경선이므로 이 지역의 배경 또한 성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함경선은 1914년 착공되었으므로 작중 배경에는 김기림의 유년기 체험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는 남쪽에서 온 인부꾼들에게 ‘윤선’, ‘자동차’ 등 근대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들이며 “제멋대로 자못 찬란한 항구를 머리 속에 그려” 본다. 앞서도 언급하였듯 이 인부들은 저녁마다 주막에 모여 “경상도나 평안도 사투리로 저마다 떠들어”대며 색주가와 놀고는 했는데, 명식의 아내 ‘윤씨’는 채수를 통해 이들이 전해 주는 근대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씨는 길을 지나다가 물을 찾던 공사판의 십장과 만난다. 윤씨는 “아래위를 검은 양복으로 쪽 빼고 증절모에 안경을 쓴 키 큰 십장”의 목소리가 “남편의 거친 말씨와는 딴판으로 미끄럽”다고 느끼며 물을 건네준다. 그리고 십장이 윤씨에게 보답으로 세수수건을 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즉, 외지인의 말투에서 뒤숭숭함을 느꼈던 명식과 달리, 윤씨에게 외지인의 사투리는 ‘미끄러운 말씨’로 여겨졌으며 그것은 사내의 깨끗하고 늙름한 풍채와 결합된 이미지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는 십장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인부꾼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그 목소리는 남편의 거친 말씨와는 딴판으로 미끄러웠다. 윤씨는 말없이 바가지를 집어서 동이에서 솥물을 반쯤 떠서 말소리의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나 사나이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했다. 그 대신 고기비늘처럼 정연하게 감아올린 사나이의 깨끗한 다리의 각반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 위에 풍채 늙름한 사나이의 윗몸뚱아리를 상상했다. (...) 그는 지금 마을사람들보다는 어디라 없이 늙름한 데가 있는 인부꾼들의 가끔 도적질해보는 몸짓과 말소리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철도연선』(1), 400) (밑줄은 인용자)

윤씨가 십장과 친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명식과 윤씨는 다툼을 하고, 그 다음 날 명식은 공사 현장에서 다이내마이트 폭발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다. 한편 윤씨는 십장과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박준이 영감은 정주에서 새어 들어오는 ‘남도 사투리’를 듣고서 며느리 윤씨가 십장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는 십장의 목소리가 ‘남도 사투리’라는 특징으로서 박준이 영감에게 인식된 것이다. 한편, 믿었던 손자인 재수도 친구와 함께 부령 혹은 청진³⁶으로 떠났다는 암시를 주고 사라진다.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자 윤씨는 십장과 함께 도망침으로써 박준이 영감은 혼자 남게 된다.

이처럼 작중에서 다른 지역의 방언은 인물들에게 뒤숭숭하고 낯선 느낌을 주는 한편으로,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씨나 젊은 재수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이들에게 남쪽에서 온 인부들의 사투리는 그들이 전해 주는 근대문명에 대한 이야기와 결합되어 긍정적으로 표상되고, 그 결과 윤씨와 재수는 모두 고향을 떠나게 된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윤씨가 마을을 떠났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어디로 갔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십장’이라는 인물은 작중에서 ‘남도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구체적인 출신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작중 그의 대사는 ▲『아즈머니 물쫄 빌리우』(『철도연선』(1), 400) ▲『아즈머니 신세를 좀 갚어야지』(401) ▲『이리 좀 오시우』(401)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으나 중부 방언일 가능성이 높다.³⁷ 이처럼 십장은 윤

36 부령이나 청진은 학성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청진은 1914년 부(府)로 지정되고 1920년대를 지나며 급격하게 인구성장을 이룩한 도시이므로, 재수가 ‘대도시’로 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재수와 그의 친구 영식이 떠날 때 “코에는 똑같이 새치경이 걸렸고 다리에는 십장이 차는 그런 종류의 각반이 감겼고 또 꼬끼에는 백통 시계줄이 드리웠”³⁷이라는 것을 미루어볼 때[『철도연선』(2), 304] 재수가 대도시의 문물을 좇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37 사례가 많지 않아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어간의 모음이 ‘아’일 때 ‘-어야지’를 취하는 것, 또 평서·의문·명령법에서 ‘-으우’가 (‘-우’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서울 방언의 음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유필제(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pp. 203-214]. 반면 ‘아즈머니’의 경우, 심재기의 『우리말 방언사전』에서는 충북, 전라 방언으로 분류하고 있다[심재기(2010), p. 311]. 따라서 십장의 방언을 어느 한 지역의 방언으로 확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중부 방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씨가 마을을 떠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지가 분명하지 않다. 함경도를 제외한 타 지역의 방언이 잘 묘사되지 않는 부분은 그 외에도 있다. 작중에는 재수와 함께 일하는 인부인 ‘김서방’과 ‘허생원’이 화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서방은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허생원은 강원도서 농사를 짓다가 온 것으로 지문에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의 대사 속 방언은 구별하기 어렵다. 김서방의 대사는 ▲『입두 마추지 못하게 해』(『철도연선』(2), 293) ▲『정신차려 벌서 사백끗이여』(294) ▲『정신차려 국화만 나오면 대포여』(294)가 있고, 허생원의 대사는 ▲『아이구 고년 감쩍해라』(293) ▲『염려말게 사백은 죽은 백이야』(294) ▲『칠피여?』(295)가 있다.

즉, 비록 ‘모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등에 대한 구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방언을 제외하면 그것이 실제로 대사로까지 재현되지는 않는다. 그 까닭이 각지의 방언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지, 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서는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의 방언이 모두 ‘타지 방언’으로 뭉뚱그려지게 된다. 즉, 단순히 ‘표준어-방언’ 간의 관계가 아닌 (표준어)-타지 방언-함경도 방언’라는 관계로 전환되는 것³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십장의 출신지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은, ‘남도’라는 막연한 공간에 대한 긍정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즉, ‘남도’라는 공간이 지닌다고 생각되는 어떤 특성

38 기본적으로 김기림이 표준어로 시를 창작하였다는 점, 강은진이 지적인 것처럼 판북 출신 시인들이 표준어 강박이라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강은진(2016), p. 91]을 고려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표준어-방언’의 위계질서는 전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표면적으로나마) 여러 방언이 등장하는 『철도연선』에서 표준어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함경도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철도연선』에 표준어 사용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어-타지 방언-함경도 방언’의 위계질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을 갖지 못한) 고향 지역에 대한 부정³⁹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 ‘과거의 것’으로 남는 고향과 방언

물론 전술하였다시피 김기림의 소설은 근대문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철도연선」에서 윤씨가 보여 준 태도를 제외하면 함경도 방언의 ‘열등함’을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여타 수필에서 김기림은 함경도 사람의 ‘군셈’과 ‘건강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가 함경도 방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은 오히려 방언을 ‘과거의 것’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철도연선」이 갖는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연구되어 왔듯 김기림은 여행을 소재로 한 시를 다수 창작하였다. 그런데 이 ‘여행’의 대상에는 그의 고향인 함경도 지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함경선 연선을 여행하고 쓴 연작 「함경선 오백킬로 여행풍경」(1934)이나 「관북기행단장」(193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행시에 대해 김기림의 초기시가 작가와 대상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정서를 억제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음을 지적한 김윤정은, 김기림이 ‘방관자’의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고향의 의미망들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⁴⁰ 실제로

39 이경돈의 논의를 참조하면, 당시 ‘북선’(北鮮)에 대해서는 식민주의자에 의해 표상된 ‘낙후된’ 지역으로서의 북선과, 북선 출신자에 의해 표상된 ‘문화 이전의 생명’이 지닌 힘’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북선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도연선」에 그려진 농촌 마을이 외부로부터의 자본 침투에 의해 생명력을 잃고 그에 따라 관북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을 거의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철도연선」에 나타난 마을의 이미지는 전자가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경돈(2019), 「北鮮의 기억: 식민에서 분단까지, 공간감각의 표상들」,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95-104].

40 김윤정(2005), 『김기림과 그의 세계』, 푸른사상사, pp. 101-103.

이 「함경선 오백킬로 여행풍경」에 수록된 시들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감정은 객관적인 사물로 대체되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일찍이 김용직은 이 연작시를 통해 김기림이 “이미지-모더니즘의 계보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⁴¹ 그렇다면 고향을 지나는 함경선 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철저히 ‘방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전제가 있고서야 가능한 것이었다.

가령 고향 상실을 논한 수필 「‘앨범’에 붙여둔 ‘노스탈자’」(『신여성』, 1933. 2.)에서는 고향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서두에서 김기림은 고향이라는 것이 ‘앨범’에나 붙여 두고 이따금씩 잠깐 펴 보고는 닫아 둘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억 속에 남은 과거 고향의 모습이 더 이상 현실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의 고향은 “사투리 섞인 어색한 그 노래”⁴²로 대변되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나그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나 결국 나그네가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때, 기차는 “무한한 희망의 지평선으로”⁴³ 나아간다고 묘사함으로써 현재의 고향이 근대화라는 ‘희망의 지평선’의 대극점에 위치해 있음을, 따라서 근대화의 힘 아래 밀려나는 것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투리 섞인’ 노래는 그가 고향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향수를 부각한다.

한편 같은 해 쓰인 「황금행진곡」(『삼천리』, 1933. 1.)에서는 함경선 열차에서 들리는 서로 상반된 소식 두 개가 제시된다. 하나는 나진이나 성진에 땅을 샀다가 개발 열풍에 힘입어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41 김용직(1997), 『김기림: 모더니즘과 詩의 길』, 건국대학교출판부, p. 34.

42 김기림(1933a), 「‘앨범’에 붙여둔 ‘노스탈자’」, 『김기림 전집』 5(김학동·김세환 편), 심설당, p. 303(이하 『전집』으로 표기한다).

43 김기림(1933a), p. 304.

청진에 땅을 잔뜩 사 두었다가 나진이 “××선”⁴⁴의 중단항이 되는 바람에 미쳐 버린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경험은 김기림으로 하여금 과거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근대화의 물결 아래 고향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일깨웠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심장 없는 기차」(『신동아』, 1933. 5.)는 「철도연선」과 유사한 ‘기차’ 모티프를 공유하는 글로, “북쪽 국경 가까운 동리”에 철도가 부설된 지 7년 정도 지난 현재, 기차가 “동리사람들을 하나 둘 하나 둘 삼켜가더니 지금은 마을의 절반이나 텅 비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⁵ 여기서는 기차가 생기고 사람들이 타지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지방소멸이라 할 법한 현상을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장에서 다루었던 소설 「번영기」 또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외부 자본의 투자로 저목장이 만들어지고 축항공사가 이루어지는 ‘번영’ 중의 마을에서, 정작 오랫동안 어부로서 그 마을에서 살아온 주인공 ‘창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보증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다.

동시기에 발표된 글들에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들은, 김기림에게 있어 고향이 향수를 자극하는 ‘과거’의 고향⁴⁶과, 쇠퇴해 가는 ‘현

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청진에 산다는 김모는 청진이 ××선 중단항이 될 줄만 알고 수성 평야에 누거만의 황금을 흠어서 수백만평의 땅을 사놓고 스스로 「로스콰일드」의 꿈을 꾸다가 그만 나진이 중단항으로 되었다는 전보를 손에 든 채 와서 3일에 『중단항, 중단항』을 연해 부르면서 저 세상에 가버렸다고 한다.”[김기림(1933b), 「황금행진곡」, 『전집』 5, p. 300] 여기서 말하는 ‘××선’은 현재의 함복선에 해당하는 김회선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부설을 추진한 김회선은, 그 중단항이 만주 지역과 일본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때문에 청진과 나진, 웅기 등에서 중단항 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1932년 8월 24일 김회선의 중단항을 나진으로 하는 것이 발표되었다. 김회선 중단항 결정을 둘러싼 각 지역 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송규진(2014), 「함경선 부설과 김회선 중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韓國史學報』 57, 고려사학회를 참조하였다.

45 김기림(1933c), 「심장 없는 기차」, 『전집』 5, p. 188.

46 조영복에 따르면, 김기림에게 있어 고향이란 ‘어머니 바다’가 있는 공간이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가 도시를 계속 비판하면서도 도시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

재'의 고향으로 분리되어 감각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고향의 이중성은, 그 고향의 언어인 방언에 대한 인식과도 통한다. 고향을 떠난 자에게 방언은 더이상 일상 언어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앨범」에 붙여둔 '노스탈자'에서 표현하였듯 어색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사투리 섞인" 노래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은 앨범에 넣어 두고 이따금씩 열어 보기만 하면 족한 과거의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앨범'은 궁극적으로는 타인과 공유될 수 없는 온전한 개인의 것으로, 일반적인 문학의 언어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소설의 지문에 사용된 방언 어휘가 마치 외래어와 같이 겹낫표(『』) 속에 제시된 것은, 그에게 방언이 지니는 이질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이 방언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본 이근화는, 고향에서 벗어나 표준어의 세계로 진입한 화자에게 있어 방언은 "표준어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고향의 언어 이상의 것"이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⁴⁷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결별을 요청하는 김기림에게 방언은 '과거의 것'으로밖에 한정될 수 없던 것은 아니었는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철도연선」에서 김기림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언어를 포함한 외부 문물의 유입에 따라 기존의 고향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과거의 것으로 밀려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함경도가 배경으로, 또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때, 함경도 방언에 대한 김기림의 판단은 결코 미학적인 관점에서만 행해질 수

던 것은 유년의 기억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조영복(2007),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pp. 124-125].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그가 떠올리는 고향은 현재의 실재하는 고향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관념적인 고향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의 고향은 결코 김기림의 상상이나 기억대로 남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47 이근화(2011), p. 52.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기림 소설에서 함경도 방언은 가령 한설야가 논 하였던 ‘강인력(強靱力)과 정열’을 가진 것으로서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앞서 2장에서 확인하였듯, 소설 내에서의 함경도 방언 사용은 하층민에게서 두드러지기도 하는데, 이는 좌담회에서 ‘초라한 적은 별판과 앞을 가리는 마천령 연산’과 고향 방언을 연결 지은 것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수필 「주을은천행」(『조선일보』, 1934. 10. 24.~11. 2.)을 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함경도 주을의 한 여관에서 하루를 보낸 김기림은 다음과 같이 여관을 술회한다.

포근한 온돌 기분을 찾아들었지만 대하는 법이 하나도 조선식이 아니다. / 더군다나 젊은 여자 두 사람이 손님을 맞아들이고 밥상에 동무하고 목욕간에 인도하는 것이 모두 이 압전한 산중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북도 아낙네들이 그 손발이 온몸과는 조화되지 않도록 크지만, 오히려 나그네의 찬탄을 받는 까닭은 어디까지든지 굳센 자립의 정신과 분투의 기개가 그 건장한 육체에 넘치고 있는 까닭이다. 그들의 자량은 서울 등지의 하도많은 기생과 창기 속에서도 좀체로 그들 북도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에 있었다. 지금 그리 고상하다 할 수 없는 이 직업에 종사하는 그들을 앞에 놓고 거기서도 역시 자본의 공세 아래 힘없이 쓰러지는 지나간 날의 탄식을 듣는 것이다.⁴⁸ (밑줄은 인용자)

김기림은 ‘북도 아낙네’가 지닌 ‘굳센 자립의 정신과 분투의 기개’, 즉 건장함이 ‘자본의 공세 아래’ 사라져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앞선 좌담회의 발언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김기림은 ‘북방성’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관북 사람들의 ‘털털함’, ‘거침’, ‘건장함’ 같은 것 속에서 도시 문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건장

48 김기림(1934), 「주을은천행」, 『전집』 5, pp. 270-271.

함을 발견하고자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김기림에게 있어 그 대립항에는 언제나 ‘섬세함’이나 ‘정려함’ 같은 가치가 마련되어 있었거니와,⁴⁹ 그러한 건강함조차 결국은 ‘자본의 공세’ 아래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북방성’이라는 고정된 가치를 두고 그것을 ‘문명’이나 ‘자본’에 대립시킬 경우, 동북 방언이 현대의 문명을 노래하는 ‘모더니즘’의 언어에서 배제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물론 김기림은 특유의 저널리스트적 감각으로 근대 문명과 도시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한 시인이었으므로,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향토성을 지닌 방언을 사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감각 때문에 비단 경성을 비롯한 대도시의 현대문명을 소재로 취하는 시뿐 아니라 고향 마을을 여행하는 시에서조차 김기림은 방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기림은 고향의 방언을 풍부히 살려 소설을 창작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방언을 “작품 속에 집어넣으려고 어떤 용력을 했는지”라는 질문 앞에서는 ‘표준어파’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그의 작품에서 방언은 표준어와 동등한 위치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4. 나가며

정리하자면, 김기림은 자신의 소설에서 학성 지역의 방언을 풍부하게 보여 주었으며, 방언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을 정도로 함경도 방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소설에서의 방언 사용은 단순히 사실성을 확보하거나 미학성을 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향에 대해 그가

49 이는 좌담회에서 김기림이 김광섭의 시를 두고 “북쪽 출신 같지 않게 섬세하고 정려하” 다고 한 것(밑줄은 인용자)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보인 태도들을 고려할 때 그의 소설들은 ‘고향’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놓인 위치를 보여 주는 것이었으며 방언에 대한 태도 또한 그러한 논리 속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김기림의 방언 의식이 반드시 미학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고향의 방언은 단순히 고향에서 사용되는 언어일 뿐 아니라 ‘과거’의 언어로, 따라서 보다 세련된 언어에 의해 밀려나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문명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김기림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겠으나, 결과적으로 김기림 문학에서 ‘고향’이라는 공간과 그곳의 언어인 방언은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는 주변부로 형상화된다. 김기림 개인의 입장에서 방언은, 현대의 문명을 노래하는 모더니즘 시를 쓰는 과정에서 배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타자였던 것이다.

근대문학에서 표준어를 쓸 것인가, 방언을 살릴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보이기 쉽지만, 개별 작가의 그러한 ‘선택’은 각자가 세계를 이해하는 복잡한 인식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표준어파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으며, 근대문학과 방언에 대해 논할 때에는 그에 대한 세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김기림의 소설에 나타난 그의 방언 의식을 해명함으로써, 방언의 미학성이 정치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본고의 작업이 김기림의 언어관을 구명하는 데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문학 창작에서 방언이 선택되는 원리를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자료

김학동·김세환 편(1988), 『김기림 전집』 5, 심설당.
『삼천리』, 『신동아』, 『조광』, 『조선일보』.

논저

- 강은진(2016), 「식민지기 관북 출신 시인들의 방언 의식과 시적 언어의 향방」, 『한국시학 연구』 45, 한국시학회.
- 곽충구(2001), 「동북 방언」, 『방언학 사전』(방언연구회 편), 태학사.
- 김용직(1997), 『김기림: 모더니즘과 시의 길』,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윤정(2005), 『김기림과 그의 세계』, 푸른사상사.
-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출판국.
- 김한성(2014),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흥수(2001),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문학과 방언』, 역락.
- 박상천(1985), 「金起林의 小說 研究」, 『韓國學論集』 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송규진(2014), 「함경선 부설과 길회선 중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韓國史學報』 57, 고려사학회.
- 심재기(2010), 『우리말 방언사전』,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 이경돈(2019), 「北鮮의 기억: 식민에서 분단까지, 공간감각의 표상들」,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근화(2011), 「김기림 시어의 혼재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3, 한국근대문학회.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
- 조영복(2007),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도서판’의 꿈』, 살림.
- 최시한(1988), 「김기림의 희곡과 소설에 대하여」, 『배달말』 13, 배달말학회.
- 홍경표(1998), 「지형적 변동과 모더니즘 정신: 편석춘 김기림의 소설」, 『어문학』 62, 한국어문학회.

ABSTRACT

Hambuk Dialect in Kim Kirim's Short Stories

Jung, Seonghoon*

Focusing on "Along a Railroad"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why Kim Kirim mostly used standard language in his poetry, by analyzing the way dialects appear in his short stories and its meaning. Kim used the dialects of Hakseong in short stories which set in Hambuk, his hometown. These dialects were not used simply to get the reality or emphasize the aesthetic sense. The hierarchy between the dialects in "Along a Railroad" is related to awareness of the position of his hometown in the modernization. Also, Hambuk dialect is positioned as a thing of the past, so he thought that values of 'hardness' and 'health', which Hamgyeong-do had, would be ousted under the offensive of capital. As a result, he excluded dialects from his modernism poetry singing modern civilization. Whether to use dialects as a literary language is not only made at the aesthetic level, but also i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modern civilization.

Keywords Kim Kirim, Dialect, Standard Language, "Along a Railroad", Hambuk Dialect, Hometown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